



라파엘소식

2 라파엘이 만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료와 나눔
- 서울대 의대 신장내과 안규리 교수

5 라파엘 클리닉

비대면 진료 실시
심장클리닉·재활의학과 비대면 진료 실시
COVID-19 감염예방 및 방호용 페이스실드 기증식
라파엘클리닉 천안모이세분소 비대면 진료 실시
'2020년 헌혈 기부권 사업' 지원단체로 선정 / 환자지원소식 / 환우들의 편지
2020 라파엘 봉사자 조직 활성화 워크숍 / 8월 비대면 진료 실시 안내
릴레이 봉사자 열전

10 라파엘 인터내셔널

미얀마 결핵검진 모바일클리닉
2020 몽골 신장내과 온라인 세미나(웨비나)
필리핀 마리아학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금

12 라파엘 나눔

제주키리타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물품 지원
제주고구 사회사목위원회에 의료물품 전달
한성구 교수의 '제멋대로 여행기' - 귀 없는 호이치

라파엘 특

허석훈 루카 영성위원장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철학과 교수

인생의 몫

정신의 자유를 누려본 사람이라면 삶의 여정이 고단하되 걸을 만한 '순례길'이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 고단함 속에서 스스로 걸어갈 여정의 목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과업에 허덕여야만 하고, 닥치는 시간에 쫓기는 것에 온 정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며 사제로 산다지만 욕심과 방만함이 제 마음을 흐려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닛 놓고 그럭저럭 살다 보면, 이 길에 들어설 때의 첫 마음을 까맣게 잊은 채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할 때가 있습니다. 제 삶의 몫을 수행하지 못하는 순간들입니다.

라파엘클리닉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의 시간을 빠짐없이 채워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젊어서 시작하고, 삶의 현장에서 은퇴하시면서 다시 라파엘에 헌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한결같이 당신 인생의 몫을 라파엘클리닉에 두고 살아오신 분들의 인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번덕스러운 열정에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절대자의 시선에 눈을 맞춘 채, 우리의 믿음과 이성적 능력으로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은 위대한 헌신이자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길 기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료와 나눔

서울대 의대 신장내과
안규리 교수



연구성과, 업적 등 다양한 주제로 이 시간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제 인생에 아직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의 숙제, 나눔’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이 행복한 숙제를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숙제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6년,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두 명의 파키스탄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 교수회 일을 돕고 있을 때였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들의 편지를 받고 예감이 이상하다고 한번 만나봐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감옥에 있으니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카레를 만들어 찾아왔습니다. 아쉽게도 교도소 내로 음식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의료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주 노동자들은 22만 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고 임금 체불로 의료 혜택조차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느낄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외로움까지 생각해보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생리학교실에 계셨던 김 전 교수님께서 저의 뜻에 선뜻 동참해 주셨고, 서울대학교 가톨릭학생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진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는 간단한 약제와 진료도구만 들어있는 남루한 껌짜 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지원을 해 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껌짜에 약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었고, 혜화동성당 백동관에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진료를

안규리 교수님의 정년퇴임 기념 강의를 전해드립니다.

시작하자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환자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 협소한 공간은 몰려드는 환자들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서울의대 내과의 첫 여교수인데 후배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는 없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하다가 김수환 추기경님의 도움으로 가톨릭대학교 성신관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나갔습니다. 또 1년 뒤에는 동성고등학교 강당 복도로 자리를 옮겨 10년 이상 그곳에서 진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상을 내어주신 신부님도 있었고 의료를 위해 먹을 것을 싸오신 분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라파엘클리닉이 꾸준히 활동하는 동안 우리와 같이 할 많은 의료진 인력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개 진료과와 약국, 진료지원까지... 대형 무료진료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시니어 선생님들도 한 분 두 분 찾아오셔서 라파엘의 진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환자들의 책임 진료를 위해 2, 3차 진료 의뢰 병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년에 천 명 이상의 환자들이 2, 3차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 도움을 받고 있고, 중증환자의 경우도 50명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쯤 라파엘의 비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GRACE’입니다.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연세대학교 의대생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GRACE는 ‘Globalization’, ‘Reproduction’, ‘Agape’, ‘Community’, ‘Environment’입니다.

Agape(진료지원)

‘Agape’는 종교적 의미에서 보면 ‘사랑’을 뜻합니다. 저는 라파엘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정직한 진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더불어 가는 이 진료소야말로 아가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료하며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어적, 시간적, 문화적 장막을 줄여나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진료환경 개선)

사실 위에서 말한 아가페를 실천하려면 그에 맞는 환경도 갖춰져야 했었는데 초창기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하나 없이 선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쫓았고 겨울에는 화롯불에 옷을 태워 먹기도 했습니다. 첫 치과 진료에서는 미용실 의자에 환자가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저희에게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큰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나둘씩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진료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2014년에는 건물 하나를 서울대 교구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본 건물은 매우 낡아 있었습니다. 수리를 해야 했지만 가진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매우 저렴하게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학과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문세, 노영심, 하림 씨 등이 발벗고 나서서 자선 음악회를 열어주었고,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거들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라파엘센터’는 지금까지 약 30만 명의 환자들이 다녀 갔으며, 2019년에는 100개의 나라에서 온 2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진료하였습니다.

Reproduction(세대 양성)

라파엘클리닉은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넘쳐 났죠. 많은 의대생들이 라파엘로 모여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의대·간호대 가톨릭학생회 CaSA친구들 뿐이었지만 점점 다른 대학의 의대생들이 우리를 돕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넘치게 찾아왔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요. 정말 순수하게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었지요. 사실 정식

의사면허가 없기에 처방전을 써 줄 수는 없어서 큰 도움은 안되었어요.(웃음) 그렇지만 대학생의 유입으로 봉사진의 연령층이 젊어져서 클리닉은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Reproduction’이라는 이슈로 함께 하기를 내심 바랬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소망대로 의대생이었던 분들이 불과 몇 년 뒤에 멋진 의사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었습니다.

‘Reproduction’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료소외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동두천에 라파엘 클리닉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단국대 의대와 함께 천안모이세분소를 개소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진료를 위해 버스를 빌려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동진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정말 고달팠지만, 청년들과 함께 했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나눔은 성장을 이끈다’는 말이 맞는 듯 합니다.

Community(커뮤니티)

그랬을 때에 ‘커뮤니티’라는 미션은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모였다 하면 서로 어울리기 바빴습니다. 라파엘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하림 씨는 클리닉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들어주고, 또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뮤지션들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열고 바자회를 개최 하는 등 축제의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휴식이 필요하다면 라파엘로 언제든지 놀러 와 주세요.^^

Globalization(해외 의료지원)

마지막 해외 의료지원입니다. 2005년에 우연히 인도의 불가촉천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국립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안과 병동에 들렀었는데, 구더기로 가득 찬 안대를 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저와 같이 해 주실 분들을 모아 팀을 꾸렸습니다. 이것이 라파엘인터내셔널의 시작입니다. 팀을 결성한 2007년, 무작정 몽골 빈민가의 보건소 외래 클리닉을 찾았 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고, 저희는 힘든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한 소장님이 오 시더니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억울했지만, 마을의 상황을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을에는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매우 많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약을 나눠 준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로는 공중위생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잇솔질 방법 등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운동법



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시켰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 몇 년 지나고 나니 한국에서 연수를 받은 의료진이 본국에서 또 다른 의료진에게 지도를 하고 있더군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몇 년 뒤에는 현지의 장기이식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체계적인 장기이식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몽골 현지에 ‘라파엘몽골리아’라는 현지 법인까지 세워져 자체적으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몽골사업에 자신감을 얻고 미얀마로 넘어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현지 보건당국이 먼저 나서서 장기이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에 맞춰 워크숍, 수술진행, 해외의료진 초청연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미얀마의 장기이식 사업이 아주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팔, 필리핀, 라오스에서 현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지요.

‘나눔도 배움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참여 덕분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눈을 돌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더 큰 나눔을 위해서는 좀 더 배워야 했고 성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20주년을 앞두고 ‘라파엘나눔’을 설립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의료 나눔 문화의 성장과 자리매김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프리메드 아카데미, 봉사자들을 위한 시, 노래, 미술,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ROSA아카데미,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은퇴를 앞둔 시니어 의료인들을 재교육하여 사회공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라파엘 나눔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요즘은 코로나 19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잠시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 또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 주세요.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를 확대하면 결국 작디 작은 손가락 하나입니다. 이처럼 나눔도 작은 손길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작은 꽃 하나를 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줘 보세요.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라파엘의 작은 손길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진료 실시

라파엘클리닉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심장클리닉을 시작으로 가정의학과, 내과, 당뇨클리닉, 재활의학과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었습니다.

투약을 중단하면 위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중과 일요일에 의사 선생님께서 전화를 걸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환자가 미리 제공한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건강상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처방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들의 처방전은 일요일 아침 일찍 약사 선생님께 전달되고, 조제된 약은 오후 1시부터 5분 단위로 약을 받으러 오기로 예약된 환자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약과 손 세정제를 받았습니다.



심장클리닉 · 재활의학과 비대면 진료 실시

6월 7일, 심장클리닉, 재활의학과 비대면 진료가 있었습니다.

심장클리닉 홍석근 선생님(부천세종병원)은 진료 2주 전 환자에게 미리 검사종류를 안내하고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한 후,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의학과는 의과대학생 시절부터 라파엘클리닉에서 봉사를 하신 현철환 선생님(건국대학교병원)께서 비대면 진료를 도와주셨습니다.

약국에서는 심명희, 서지영, 김은아, 지은경 약사님께서 1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약 조제를 도와주셨고, 특히 프랑스어를 사용하시는 자클린 수녀님께서 친절한 상담으로 약배부를 맡아 주셔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환자들도 약 복용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COVID-19 감염예방 및 방호용 페이스 실드 기증식

지난 6월 16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RID-3521 타이페이노스와 RID-3640 남서울로타리가 함께하는 페이스실드 기증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증받은 페이스실드는 총 1,000개로, 서울 라파엘클리닉을 비롯하여 동두천분소, 천안모이세분소, 예리코클리닉, 부산 알로이시오 기념병원, 안산 성빈센트의원, 목포 이주민 지원센터, 너싱홀 그린힐에 배분되었습니다.

기증식에 참석한 김창덕 라파엘클리닉 대표이사는 “페이스실드를 기증해주신 타이페이노스, 남서울로타리 회장님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며 소외된 이주노동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라파엘클리닉 천안모이세 분소 비대면 진료 실시

6월 21일, 라파엘클리닉 천안모이세분소의 비대면 진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울 라파엘센터에서의 비대면 진료가 있었으나, 천안에서의 비대면 진료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천안모이세분소의 비대면 진료 준비를 위하여 한 주 전에 미리 전화상담을 도와줄 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와 통화를 하며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진료 당일인 21일에는 가정의학과 장호선 선생님께서 진료를 맡아주셨습니다. 서윤석 천안모이세분소 진료소장님과 이길호 천안모이세분소 실행위원님도 진행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통역 봉사자 분들도 기꺼이 진료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날 약 조제는 황동숙 약사님께서 담당해주셨고, 조제된 약은 약배부 봉사자들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에는 참여하신 세 분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날의 진료를 돌아보고 다음 비대면 진료를 위한 개선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천안모이세분소 비대면 진료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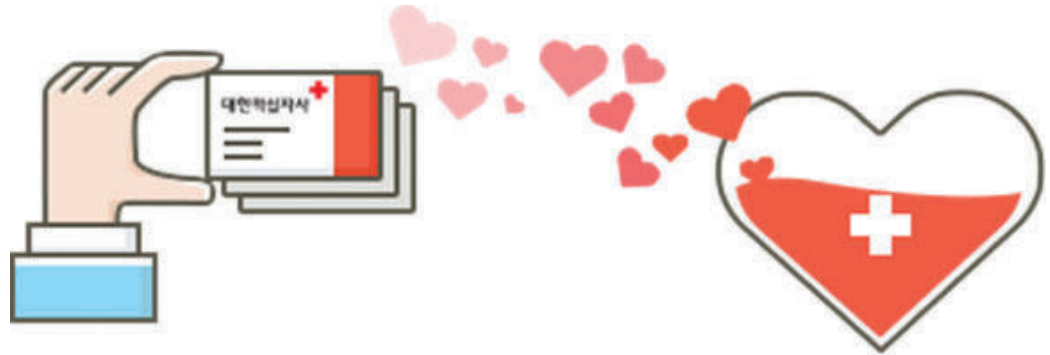


‘2020년 헌혈 기부권 사업’ 지원단체로 선정

라파엘클리닉이 2019년에 이어 ‘2020년 헌혈 기부권 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헌혈 기부권 사업은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에 기부를 통한 물질 나눔을 더하여 선진 헌혈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마련된 것으로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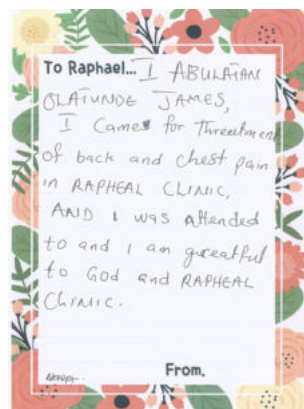
국적에 상관없이 인간존중과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으로 일깨워주는 헌혈권 기부자와 인도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적십자사의 헌혈기부권사업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지원 소식

월	진료 장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4월	라파엘센터진료소	(중국 / 1979년 / 여) 내과 진료비	260,500원
		소계	260,500원
5월	라파엘센터진료소	(중국 / 1979년 / 여) 내과 진료비	274,500원
		(인도 / 1976년 / 여) 신경외과 수술비, 코일색전술	2,099,450원
		(나이지리아 / 1986년 / 남) 내과 진료비	482,850원
	동두천분소	(방글라데시 / 1990년 / 여) 내과 진료비	4,600원
		(스와질란드 / 1982년 / 남) 내과 진료비	358,640원
		(나이지리아 / 1963년 / 남) 내과 진료비	358,640원
		(나이지리아 / 1964년 / 남) 내과 진료비	82,350원
소계	3,661,030원		
6월	라파엘센터진료소	(중국 / 1979년 / 여) 내과 진료비	249,900원
		소계	249,900원
계			4,171,430원

환우들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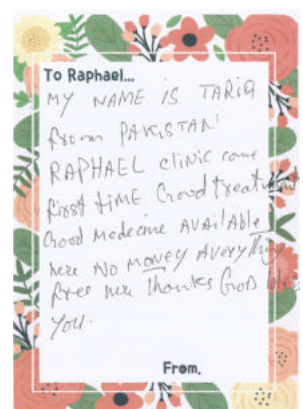


오늘 등과 가슴통증 치료를 위해서 라파엘 클리닉에 왔습니다. 주님, 그리고 라파엘 클리닉 정말 감사드립니다.

From. Abulaian olaiunde ja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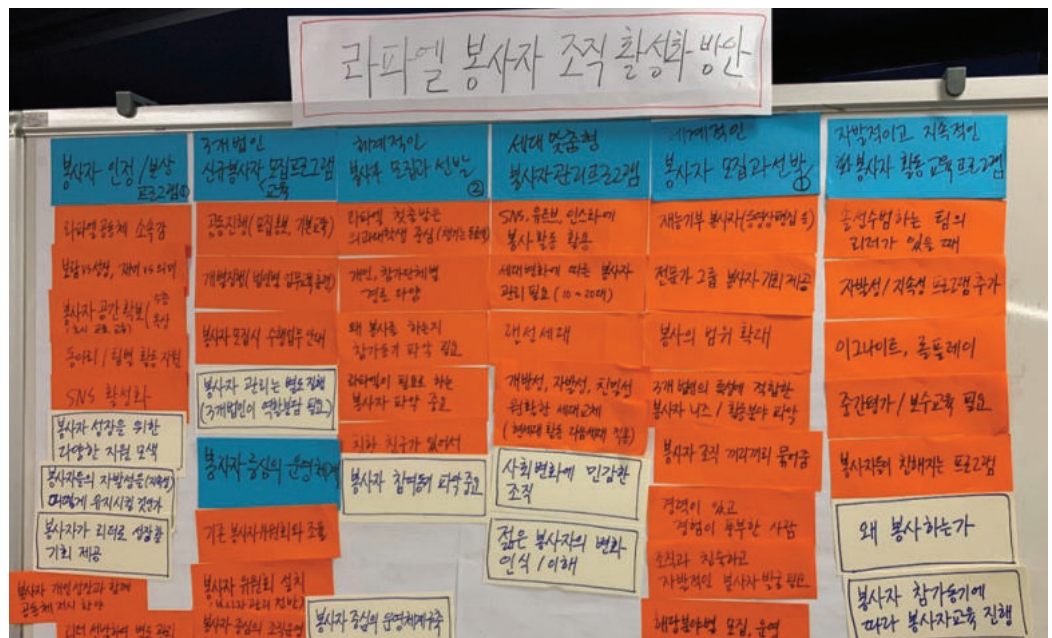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온 타리아 입니다. 라파엘클리닉은 오늘 처음 방문인데, 좋은 치료와 약을 여기서 무료로 주셨습니다. 신께 감사드립니다.

From. Taria



2020 라파엘 봉사자 조직 활성화 워크숍

라파엘클리닉은 봉사자들의 지속성 유지와 성장을 통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봉사팀장 회의를 개최하여 각 팀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봉사자 모집과 선발, 봉사자 교육, 봉사 활동, 인정 및 보상 등의 주제로 지금까지 다섯 번의 봉사자혁신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봉사자혁신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라파엘 봉사자 교육의 목적을 점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였고, 봉사자의 인정 및 보상 체계를 논의하면서 라파엘 봉사자 리더인 팀장의 업무와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8월 비대면 진료 실시 안내

“ 예약진료 안내

라파엘클리닉은 코로나19(COVID-19) 감염예방 및 생활속 거리두기 등의 정부방침에 따라 4월부터 심장,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예약 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과거와 같은 대면 진료는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오니

전화 02-763-7595 또는 <http://bitly.kr/mZqBJFGugC> 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분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코로나19 무료검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2-763-7595

라파엘클리닉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8월에도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합니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해주실 선생님은 연락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에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릴레이 봉사자 열전

- 오지영 봉사자

Q 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월부터 라파엘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오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건축을 전공했으나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의대로 방향을 바꿔 지원 및 합격하여 입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려는 학교가 해외에 있어 9월 개학 이전까지 주 3~4 회 라파엘클리닉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2. 라파엘에서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는데, 건축 전공 당시 여건상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여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 돌아와 진로변경을 결정하며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전에 라파엘에서 봉사하셨던 경험을 얘기해 주셨고 저도 전공과와 연결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라파엘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3. 라파엘클리닉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처음 시작했을 땐, 접수팀에서 환자들이 온 순서대로 번호표를 배부하고 진료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혜숙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제가 의대를 지원한 것을 아시고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팀 변경을 해 주셨고 덕분에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료보조는 대부분 의대생들에게 주어지는 업무라, 저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의 EKG나 혈당 체크 등 진료 시 필요한 부가적인 업무를 장혜숙 선생님께 교육받아 실행했습니다. 진료보조로서는 의사선생님께서 환자들을 진찰하시면, 그 상담 내용 및 진단 내역을 EMR(전자의무기록차트)에 선생님 감독하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김열자 선생님, 홍석근 선생님과 같은 의사 선생님들 곁에서 다양한 환자를 상대로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Q 4.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라파엘클리닉이 휴진인데 나오시네요?

네, 라파엘클리닉이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월부터 휴진을 해서 저도 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려 라파엘 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렸었는데, 김열자 선생님께서 4월부터 실시한 라파엘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선생님들을 도와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 라파엘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으신 환자들 중 만성질환자로 분류된 분들께 전화를 겁니다. 전화로 혈압수치, 혈당수치 등 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환자들이 의사선생님과의 비대면진료 스케줄을 잡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전과 같이 진료보조 업무도 병행하여 의사 선생님들 곁에서 환자 진료와 처방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의뢰서 또는 환자분들의 타병원 검진 결과서, 진료 내역 등 필요한 서류 등 의사 선생님들께 드릴 환자의 의료기록들을 미리 확인합니다.

동두천과 천안에서 다시 비대면진료 및 약배부를 시작한 관계로 환자들께 천안·서울·동두천분소 중 환자분께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일요일에는 최근에 다시 돌아오신 라파엘 봉사자분들께 비대면진료 관련되어 바뀐 내용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Q 5. 봉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죠?

현재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시작하게 된 비대면진료 특성상 환자분들을 직접 마주하여 상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진료와 그 분들께 꼭 필요한 진료를 구분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특히 라파엘 환자분들 중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둘 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 통역사 없이는 명확한 환자 상담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전과 바뀐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환자분들께 상담 및 안내를 정기적으로 해드릴 봉사자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고 상세하게 환자분들을 응대하기 어려워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Q 6. 라파엘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일단 지금은 전화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라파엘에서 화상진료도 고려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상진료를 한다면 얼굴 표정, 몸짓 등으로 좀 더 환자를 면밀히 살필 수 있어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지금 보다는 더 정확하고 상세한 진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환자분들과 의사 선생님들께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비대면진료도 기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진료과에서만 실시하다 보니, 신규 환자들을 매번 돌려보내야 해서 안타깝습니다. 부디 COVID-19가 빨리 종식되어 다시 클리닉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결핵검진 모바일클리닉

라파엘인터내셔널과 KT&G복지재단이 함께하는 미얀마 결핵검진이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6월, 네피도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기존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이지만,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생규칙을 잘 준수하는 보건인력을 검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보건인력은 환자와 접촉해야 하는 만큼 전염병을 보유하는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기검진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피도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검진사업은 6~7월 간 총 5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25일, 네피도 Dakkhina Thiri 타운십 병원에서 첫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인력 49명을 검진하여 그 중 1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환자는 결핵중앙센터의 관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얀마 지역주민과 보건인력의 결핵검진을 위해 후원해주신 KT&G복지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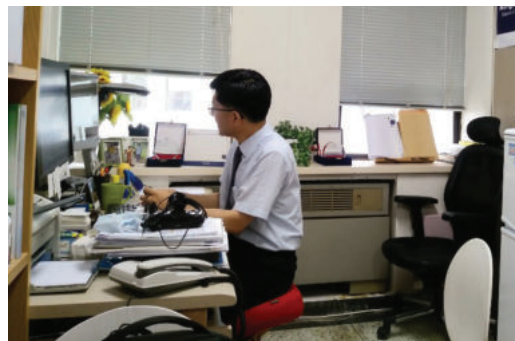


2020 몽골 신장내과 온라인 세미나 (웨비나)

지난 7월 1일, 2020 몽골 신장내과 첫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서 오국환 교수(신장내과 지도교수)가 진행을 맡고 몽골 신장내과 22명의 라파엘 초청연수 연수자와 예비 연수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우선 몽골 연수자들이 학습한 의료 술기를 현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오국환 교수가 피드백을 한 후, 참석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몽골 신장내과 세미나는 2009년부터 매년 현지를 방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과 몽골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기존 연수자와 올해의 예비 연수자들이 온라인 교육을 요청하였고, 오국환 교수가 현지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한 몽골 의료진들은 온라인 방식이 장소 제약 없이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어 좋았고, 당장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였는데 지도교수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몽골 신장내과 온라인 세미나를 후원해주신 국제로타리와 신장내과 지도교수인 오국환 교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라파엘인터내셔널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의료진의 역량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지도교수(오국환) 웨비나 진행



▲ 몽골 제1병원 웨비나 진행

필리핀 마리아 학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금

마리아학교는 6.25전쟁 이후 알로이시오 몬시놀리 부모를 잃은 한국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마리아 수녀회를 설립한 것을 효시로 현재 필리핀,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온두라스, 탄자니아에서 운영 중인 기숙학교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두 지역(마닐라 카비테주 실랑지역, 세부 탈리사이시 밀랑니아지역)의 학생 약 1만 2천여 명에게 중고등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파엘인터내셔널은 2012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가톨릭동아리 카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동아리 카당과 협력하여 필리핀 마리아학교 학생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며 필리핀 마리아수녀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 2회(1월: 카사, 마닐라 7월: 카당, 세부) 동아리 졸업생(의료진)과 재학생(의대생)이 학교에 방문하여 필리핀 학생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매회 약 2,000명의 학생이 검진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한국 초청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지역을 봉쇄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마리아학교도 봉쇄되었습니다. 준비한 행사, 프로그램 등을 대부분 취소하였고 작년에 선발한 학생들의 올해 입학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학교를 위한 후원금이 기존의 50% 이하로 급감하였습니다. 학교당 6,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한 달에 소비하는 쌀의 양은 55kg 기준 1,000포대가 넘고 식비로만 매월 억대의 금액이 필요한 상황에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리아학교를 위해 2020년 4월~6월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진행하였고 카사, 카당, 라파엘나눔, 치아친구(구강검진팀)에서 총 43,931,004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후원금으로 학생들을 위한 쌀을 구입하였습니다. 모금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① 필리핀 실랑 마리아학교의 감사영상 중

② 필리핀 실랑 마리아 학교 전경

제주교구 사회 사목위원회에 의료물품 전달

라파엘나눔은 21일, 천주교 제주교구 사회사목위원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물품은 마스크 7,600개, 손소독제(500ml) 572개, 비접촉체온계20개, 소독용 세제(18kg) 4개이며, 제주교구 사회사목위원회를 통해 제주도의 중증장애인시설 외 9개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후원 물품 전달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김전 라파엘나눔 이사장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인 제주 사회복지 시설에 이번 후원 물품이 작은 도움이나마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성구 교수의 '제멋대로 여행기'

귀 없는 호이치

시모노세키에 있는 아카마신궁에는 헤이케 무사들의 무덤 근처에 '귀 없는 호이치'라는 상이 있다. 이 사람은 누구길래 아카마신궁에 있을까? 호이치라는 사람은 왜 귀가 없을까? 여행자의 호기심을 풀어보자.



▲ 아카마신궁의 귀 없는 호이치. 장님이라서 귀가 밝았는지 비파의 명인이었다.

단노우라 전투에서 헤이케가 멸족을 당하고 백년 이상 지난 뒤 '헤이케 모노가토리(平家物語: Tale of Heike)'라는 일본 문학의 대단한 작품이 나타난다. 일본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일본의 '일리아드'라고 부르는데 얼토당토않은 과장은 아니다. 헤이케가 미천했을 때부터 영화로웠던 시절을 거쳐 겐페이 전쟁으로 멸족이 될 때까지의 헤이케 씨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학적인 가치도 훌륭해서 그간 영어로는 다섯 번 이상 번역이 되었던 작품이다.



▲ 눈도 멀고 귀도 없는 호이치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인다 음악이 위안을 주는 걸까?

호이치는 눈이 먼 장님이면서 비파의 명인이었다. 특히 ‘헤이케 이야기’를 비파를 뜯으면서 노래 하는데 아주 뛰어났다고 한다. 음유시인이었던 것이다.

호이치는 어느 절에 몸을 의탁하고 자신의 노래를 듣기 원하는 신도들에게 이를 들려주면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안 보이는 호이치에게 아주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단다.

“호이치! 호이치!”

“네.”

“나는 가장 존귀한 분을 모시고 있다. 그 존귀하신 분께서 네 노래를 듣고 싶어하시니, 너는 나와 같이 가야겠다.”

저 목소리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다고 했단다. 호이치는 이 소리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서 드디어 어디인지 도착을 했다. 두런두런대는 시녀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말투로 보아 궁궐의 말투 같았다. 이윽고 노래가 시작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에 빨려 들어오는 것을 호이치는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헤이케가 멸망하는 대목에 이르자 여기저기 흐느끼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호이치에게 들려왔다고 한다. 호이치는 이제까지 겪어 본 적이 없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호이치를 데려온 그 무서운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수고했다. 데려다 주마. 내일 밤에도 다시 와야겠다.”

“너는 여기 온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면 안된다.”

무서운 목소리는 다짐을 받았다. 이렇게 거의 매일 호이치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밤에 다녀오니 드디어 이 절의 주지스님이 호이치가 왜 저러는지를 물어도 호이치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지스님은 그날 밤 몰래 호이치의 뒤를 밟았다. 호이치가 도착한 곳은 바로 바다에서 ‘용궁으로 간’ 어린 안토쿠 천황의 무덤 앞이었다. 거기서 호이치가 노래를 시작하니 주변에 파란 도깨비 불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닌가.....

산 사람과 죽은 혼령이 자주 만나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주지스님은 호이치의 온몸에 불경을 써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혼령이 호이치를 못 볼테니 너는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주지스님의 당부였는데, 아뿔싸! 주지님이 그만 호이치의 귀에 불경을 쓰는 것을 잊었다고 한단다.

그날 밤, 그 무서운 목소리가 다시 나타났다.

“호이치! 호이치!”

“.....”

무서운 목소리는 다시

“이 녀석이 숨었구나. 그런데 귀가 보이네?”

“네 놈이 안 가려고 숨어서 데려갈 수는 없지만 내가 여기 왔었다는 증거를 존귀하신 분께 말씀을 아뢰어야 하니 네 귀를 잘라 가겠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호이치의 귀는 잃고 말았다는 것이 호이치의 전설이다.



그런데 귀 없는 호이치의 상은 시모노세키 아카마신궁 이외에 멀리 떨어진 시모네현의 마츠에에도 있다. 어떤 일일까? 바로 고이즈미 야쿠모(小泉八雲 Lafcadio Hearn)라는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 영국 군의관의 아들로 그리스에서 태어나 더블린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하다가 일본 특파원으로 왔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일본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사무라이의 딸과 결혼하고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이었다. 그는 괴담(가이단)을 비롯해 수많은 일본의 문화, 이야기를 영어로 번역해서 서양에 알렸고 괴담에 ‘귀 없는 호이치 이야기’가 실리면서 서양에도 널리 퍼졌다.

◀ 시모네현 마츠에에 있는 귀 없는 호이치의 상. 아카마신궁의 상보다 더 처연하다. 시모노세키에서 있었던 일이 왜 마츠에에 있을까? 고이즈미가 이야기를 널리 퍼뜨렸기 때문이다.



◀ 1964년 일본영화 ‘괴담(怪談: Kwaidan)’ 속의 귀 없는 호이치. 아주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 고베시의 수마사(須磨寺)에는 귀 없는 호이치 이야기를 연극으로 공연한다. 헤이케 무사의 유령이 칼을 들고 호이치의 귀를 베려 하고 있다.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참 기특하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옛 이야기,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이다. 호이치 이야기는 한낱 괴담일 수 있지만 지금도 고베시의 수마사(須磨寺)에는 귀 없는 호이치 이야기를 연극으로 공연한다. 그리고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다. 현대의 애니메이션에도 온 몸에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종종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호이치 이야기의 패러디이다.

4,5,6월 진료에 수고해주신 진료부와 진행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라파엘클리닉은 4월부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료부		진행부	
가정의학과	김수아 김열자	간호사	주선경	총괄 고재성 김 전 김창덕 안규리
내과	김상혁 김창덕 이재동 천안 장호선	약사	김경자 김다원 김양민 박효숙 서지영 심명희 이명락 최성한 함경화 천안 황동숙	실행위원 천안 김기환 서윤석 이길호 장호선
당뇨클리닉	민경완		천안 황동숙	의과대학·간호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하에모'
심장클리닉	홍석근		숙대 약대 개국동문	강현선 성지윤 송지현 이가를 이상영장민지
재활의학과	고주영 김태림 명유호 원준희 조인경 현철환		김성숙 김은숙 김은아 이옥현 이항주 지은경 최혜경	약학대학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라봉' 구해민

2020년 4월~2020년 6월의 라파엘 천사입니다.

라파엘 클리닉

1004 강금례 강봉자 강애란 강윤미 강정희 강효경 강희경 강희복 고민관 고재성 곽순진 정옥희 정재식 정정례 정정희 정태운 정혜남 정현규 정혜경 정희경 조광희 조문준 조미경 권성연 권오기 권정희 권준수 금신자 기종간 김경길 김경업 김경희 김광두 김광범 김귀자 조상현 조수현 조아현 조이현 조정례 조혜경 조혜숙 주미숙 주선경 주효미 진순영 진양옥 김기정 김기환 김나영 김담희 김대욱 김동률 김두례 김 란 김명석 김명숙 김무경 김미승 최금순 최선경 최선자 최영희 최 용 최윤라 최인호 최지영 최정호 최정욱 최 황 추연명 김민아 김민정 김민지 김병석 김봉록 김상정 김선덕 김성미 김수안 김수진 김연동 김영국 김영미 김영숙 김영중 김영재 김영주 김영희 김왕울 김용운 김용호 김옥성 김원희 김유경 김유숙 김윤섭 김윤중 김은경 김인혜 김재희 김 전 김정자 김정희 김주영 김주현 김중근 김지엽 김진순 김창경 김태민 김파라 김학성 김해주 김현철 김혜자 김호철 김홍빈 김희동 김희수 김희정 김희중 나명훈 나상호 나승구 남상효 남숙이 노진희 마대중 마승희 문덕자 문미희 문석란 문수정 문영주 문종렬 민경완 박건우 박경수 박기호 박대연 박영희 박문규 박미애 박미영 박상규 박선영 박소은 박소정 박영배 박용현 박용화 박유희 박은선 박재홍 박점숙 박주영 박지영 박지호 박찬희 박찬일 박태균 박혜심 박화숙 박희규 방활란 방효선 배성민 배재문 백가은 백경훈 백성호 백인하 백재승 변유란 변정익 서영선 서영주 서유전 설영기 성낙영 손대원 손말희 손정희 손혜정 손혜경 송순자 송여주 송은숙 송재성 송지영 송진옥 신동욱 신동학 신미희 신영실 신인철 신타식 심영수 안미혜 안중철 안치석 양영실 양윤희 양재철 엄영근 엄익부 엠 마 슈 미 트 염우섭 오명주 오세란 오세열 오세준 오정성 오정택 오준영 오지영 오지원 오지현 오혜숙 왕해숙 원영신 원종태 위봉애 유경동 유경춘 유병란 유승주 유재호 유규옥 윤문자 윤미순 윤병우 윤병철 윤의영 윤장수 윤정복 윤혜리 이경정 이공필 이기연 이대우 이명원 이민경 이민아 이민혁 이부영 이상백 이선민 이선주 이성근 이소영 이수정 이수희 이 영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예선 이오례 이용학 이용희 이원평 이유경 이은상 이은숙 이인재 이재광 이재용 이재희 이정완 이주식 이지연 이진석 이차욱 이태림 이현석 이현주 이홍성 익 명 임태환 장기현 장수홍 장승아 장윤석 장인진 장정인 장현아 전병준 전상우 전석규 전윤희 전정희 정서모 정성우 정순은 정순희 정영숙 정구숙 정규탁 정도현 정명관 정미경 정봉태 정산현 정성진 정유빈 정의석 정인규 정장환 정재은 정지태 정진태 정진환 정해탁 정혜경 조경태 조남문 조대성 조정숙 조한범 조현애 주덕례 차영은 차창일 차혜정 채승병 천지영 최건주 최공선 최두성 최복현 최순옥 최순철 최영아 최은옥 최인범 최재경 최진이 최혜수 하정은 하희옥 한영은 한승환 한재일 함방자 허석훈 허연호 홍경애 홍영태 홍윤희 홍혜진 황민주 황보현우 황주연 황지영 황지희

단체후원
(주)원풍 (주)천지산업 (주)피제이전자 OCI주식회사 담우물산 두영컴퍼니 부페아리스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의)희경의료재단 성베드로병원 한국교와기린 주식회사 한영회계법인 휴먼영상의학과의원

개인약품후원 김현철
개인물품후원 서종모

단체약품후원
(재)롯데복지재단 (주)유한양행 삼진제약 주식회사 유유제약

단체물품후원
남촌재단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주식회사 아이센스 한영회계법인

지정후원
(재)바보의 나눔 (재)유한재단 (주)하나은행 GS(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남호복지재단 남서울로타리클럽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한국수출입은행

라파엘 인터 내셔널

강남구 강미령 강민진 강승우 강옥선 강윤하 강임주 강정남 강지원 고광택 고명순 고소영 정구숙 정규탁 정도현 정명관 정미경 정봉태 정산현 정성진 정유빈 정의석 정인규 정장환 고영초 고지연 권수지 권운우 권익희 권혜철 김경덕 김경숙 김공경 김규복 김길원 김길자 정재은 정지태 정진태 정진환 정해탁 정혜경 조경태 조남문 조대성 조정숙 조한범 조현애 김돈규 김명기 김명열 김명희 김민희 김미금 김미애 김민정 김병규 김봉애 김상호 김선미 주덕례 차영은 차창일 차혜정 채승병 천지영 최건주 최공선 최두성 최복현 최순옥 최순철 김선주 김성봉 김성용 김성우 김성정 김세경 김소연 김수연 김수현 김수화 김순녀 김순민 김순심 김순옥 김연정 김영석 김영순 김영술 김영재 김용준 김우현 김용환 김유연 김유정 김은주 김인순 김재석 김재우 김 전 김정문 김정미 김정아 김정애 김정원 김정준 김정환 김종철 김종현 김준진 김지양 김지현 김지희 김진자 김진철 김춘서 김철선 김현기 김현숙 김현진 김효순 김홍년 김희숙 남기미 남점우 노무중 노정우 노준화 노태술 노희양 도희철 김희수 김희정 김희중 나명훈 나상호 나승구 남상효 남숙이 노진희 마대중 마승희 문덕자 문미희 문석란 문수정 문영주 문종렬 민경완 박건우 박경수 박기호 박대연 박영희 박문규 박미애 박미영 박상규 박선영 박소은 박소정 박영배 박용현 박용화 박유희 박은선 박재홍 박점숙 박주영 박지영 박지호 박찬희 박찬일 박태균 박혜심 박화숙 박희규 방활란 방효선 배성민 배재문 백가은 백경훈 백성호 백인하 백재승 변유란 변정익 서영선 서영주 서유전 설영기 성낙영 손대원 손말희 손정희 손혜정 손혜경 송순자 송여주 송은숙 송재성 송지영 송진옥 신동욱 신동학 신미희 신영실 신인철 신타식 심영수 안미혜 안중철 안치석 양영실 양윤희 양재철 엄영근 엄익부 엠 마 슈 미 트 염우섭 오명주 오세란 오세열 오세준 오정성 오정택 오준영 오지영 오지원 오지현 오혜숙 왕해숙 원영신 원종태 위봉애 유경동 유경춘 유병란 유승주 유재호 유규옥 윤문자 윤미순 윤병우 윤병철 윤의영 윤장수 윤정복 윤혜리 이경정 이공필 이기연 이대우 이명원 이민경 이민아 이민혁 이부영 이상백 이선민 이선주 이성근 이소영 이수정 이수희 이 영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예선 이오례 이용학 이용희 이원평 이유경 이은상 이은숙 이인재 이재광 이재용 이재희 이정완 이주식 이지연 이진석 이차욱 이태림 이현석 이현주 이홍성 익 명 임태환 장기현 장수홍 장승아 장윤석 장인진 장정인 장현아 전병준 전상우 전석규 전윤희 전정희 정서모 정성우 정순은 정순희 정영숙 김남호복지재단 남서울로타리클럽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한국수출입은행

지정후원
(재)라파엘나눔 (재)아산나눔재단 e-편한치과(이정옥) 공동모금회_포스코 국제로타리 서울미래치과의원(지혜선) 케이티앤지복지재단(KT&G) 강경모 강동희 강현우 계민석 고영초 고재성 구백서 권오상 김부영 김상현 김상희 김수지 김수지 김승준 김양수 김요완 김용태 김정길 김정현 김창희 김창희 김치원 김혜리 김호준 김희수 남궁호삼 남승환 노상욱 류동희 류세민 류현진 문종렬 박경희 박상훈 박선미 박정원 박재연 박주연 박혜원 박호정 박윤영 방의철 서민희 선민영 선우태원 성낙현 손보라 송병호 신경원 신영규 신유경 엄정숙 여혜숙 오범조 오유영 오진경 유동욱 유준상 육유정 윤서정 윤현배 이경민 이규민 이상미 이상호 이승은 이은재 이윤재 이은미 이인혁 이주현 이지영 이채혁 이태운 이호영 이희석 임경택 임지영 장기현 장윤석 장호선 전승연 전혜정 정다운 정영진 정유미 정지호 조도상 조병제 조성현 조현자 조희원 최 윤 최윤영 하승연 한규섭 한정훈 한혜진 홍강의 황승소 황종욱 황찬호

단체후원
(주)아웃도어파크 (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주)유리통상 광명산업(주) 사랑의후원금 씨에스우드(주) 의료법인 세경의료재단 케넥스사운드

라파엘 나눔

- 강건욱 강경임 강경화 강기석 강민서 강민수 강민정 강범석 강병도 강부성 윤성노 윤성숙 윤성자 윤소영 윤영주 윤용현 윤은옥 윤의진 윤이경 윤인숙
- 강애란 강영배 강요한 강은숙 강은강 강은주 강인숙 강하나 강화자 강효정 윤인자 윤재순 윤재희 윤종식 윤주빈 윤태로 윤현배 윤혜진 윤희옥 윤희원
- 강 훈 경희호 고경민 고명찬 고민수 고소현 고원준 고준용 고지은 고춘영 은진영 이건엽 이경민 이경숙 이경옥 이경주 이경훈 이경희 이계선 이광복
- 고 훈 고희순 공문선 공성혜 공인숙 광용자 광용진 광재복 광주연 광진영 이광호 이규상 이규희 이기남 이기원 이기혁 이남오 이달봉 이달원 이도경
- 구서희 구자겸 권병준 권선진 권승택 권승호 권오철 권재훈 권준범 권준이 이동건 이동한 이 란 이명란 이명숙 이명옥 이미라 이미애 이미지 이미화
- 권지형 권형주 기현희 김가연 김건우 김경미 김경민 김경삼 김경숙 김경인 이미희 이민경 이민규 이민옥 이민우 이민재 이병동 이병옥 이병호 이복순
- 김경자 김경화 김광무 김귀숙 김규림 김규빈 김기남 김기문 김기풍 김기환 이상남 이상미 이상민 이상은 이석래 이선재 이선희 이상배 이상이 이소영
- 김나나 김나은 김낙현 김남미 김남웅 김남호 김다민 김대순 김대용 김대진 이수현 이수미 이수민 이수은 이수자 이승철 이승현 이승화 이아름 이연숙
- 김덕호 김덕희 김도원 김동순 김동연 김동엽 김동중 김동현 김면수 김명숙 이연옥 이연출 이영애 이영애 이영은 이영인 이영일 이영희 이옥준 이용미
- 김명순 김명신 김명영 김명옥 김명웅 김명화 김미경 김미정 김민순 김민우 이용석 이원경 이원표 이원미 이유미 이유진 이윤의 이윤지 이윤희 이은경
- 김민정 김민주 김민채 김범석 김범진 김보경 김봉길 김상범 김상수 김상윤 이은빈 이은재 이은지 이은진 이은하 이은희 이의석 이인자 이장원 이재선
- 김상준 김상철 김상희 김서현 김선미 김선영 김선희 김성민 김성수 김성현 이재원 이재진 이재희 이정민 이정아 이정옥 이정은 이정철 이정현 이정희
- 김성환 김세웅 김세진 김소정 김소형 김수경 김수미 김수아 김수연 김수영 이재현 이종림 이종만 이종민 이종철 이종현 이종화 이주영 이준동 이준한
- 김수정 김수주 김수지 김순녀 김순희 김승철 김시현 김양현 김연수 김영기 이준행 이지민 이지섭 이지연 이지윤 이지혜 이진태 이 찬 이찬희 이찬희
- 김영남 김영래 김영수 김영아 김영재 김영훈 김영희 김예준 김옥수 김완수 이창우 이창학 이철재 이충식 이태경 이태규 이태식 이 한 이한규 이한신
- 김요한 김용건 김용경 김우주 김유영 김유진 김유향 김윤동 김윤미 김윤상 이향숙 이현국 이현숙 이현심 이현재 이현란 이현진 이혜경 이혜옥 이혜진
- 김윤서 김윤아 김윤정 김윤주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순 김은옥 김은정 이호열 이호영 이호준 이화자 이효정 이희석 임경옥 임동우 임명규 임봉선
- 김은희 김은수 김이숙 김이형 김자경 김자은 김장성 김재하 김재현 김 전 임송연 임안식 임연희 임원영 임은교 임인숙 임재우 임정선 임정옥 임준경
- 김정곤 김정림 김정미 김정순 김정연 김정우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제 임준호 임지영 임진용 임진화 임한규 임혜규 임혜원 장경복 장경진 장문수
- 김정호 김정희 김종업 김종원 김종진 김종필 김종호 김종훈 김주영 김주희 장비호 장상훈 장세선 장수영 장수진 장순복 장영수 장영철 장욱주 장운재
- 김 준 김준민 김준호 김지수 김지영 김지하 김지현 김지호 김지희 김진규 장재욱 장정민 장정혜 장준수 장현민 장혜숙 전경선 전동원 전미경 전병선
- 김진수 김진숙 김진순 김진영 김진호 김진희 김채영 김추양 김태열 김태욱 전병암 전승호 전양미 전은주 전혜정 전희중 정규현 정 남 정다빈 정달근
- 김태원 김태현 김태형 김태희 김필성 김하석 김학준 김한성 김한수 김현옥 정민주 정상식 정상화 정선민 정소영 정수영 정순균 정승민 정승이 정아현
- 김현정 김현주 김현준 김현지 김현화 김형구 김형국 김형수 김형준 김형하 정연수 정연호 정영근 정영빈 정영자 정영철 정영희 정왕진 정우경 정우영
- 김혜경 김혜리 김혜선 김혜숙 김혜연 김호정 김홍자 김화정 김호준 나동규 정원제 정은지 정재경 정재상 정정희 정제설 정종련 정종현 정준기 정준호
- 나수영 나유미 나종욱 남계영 남궁중 남맹동 남상범 남숙희 남영우 남윤자 정지원 정지은 정진목 정혜경 정혜영 정희창 조덕관 조미진 조민우 조민주
- 남인옥 노경태 노민수 노영숙 노영자 노유진 노정숙 노주환 노진영 도시현 조법철 조부규 조서현 조 석 조성범 조성연 조성채 조성희 조수영 조순례
- 라성은 류국영 류수영 류은주 류현주 맹승현 모희정 문경원 문상원 문선진 조송희 조송희 조연수 조영숙 조영순 조옥순 조운서 조운성 조은지 조재영
- 문승자 문영미 문정숙 문지환 문현일 민경울 민진호 박경봉 박경빈 박경심 조재호 조주연 조준철 조춘식 조춘제 종민정 주세원 주세범 주재원
- 박경자 박경희 박근배 박만섭 박명규 박명순 박미경 박민성 박민지 박민혜 지완일 지정훈 진영옥 진영진 진혜영 차상민 차서우 차영순 채영규 채윤서
- 박상섭 박상진 박상철 박서영 박선옥 박선우 박선은 박성준 박세근 박수열 채창규 천정은 최내리 최대환 최동일 최명애 최명윤 최미경 최미정 최민웅
- 박수중 박수준 박숙녀 박순연 박순영 박순자 박순희 박시형 박신안 박영기 최범규 최병선 최서연 최선에 최수미 최수안 최수연 최숙자 최아인 최영자
- 박영수 박영식 박영준 박영환 박영희 박옥진 박옥희 박외숙 박용식 박우근 최영화 최영희 최원남 최원의 최원일 최원오 최윤영 최윤옥 최윤진 최은영
- 박우준 박용양 박윤아 박윤주 박은경 박은희 박장환 박점례 박정미 박정민 최은주 최은희 최의혜 최 인 최인희 최재원 최재원 최정규 최정은 최정훈
- 박정안 박정우 박정의 박정임 박정희 박종식 박종택 박종환 박종훈 박 준 최지영 최지호 최지훈 최창환 최치영 최현숙 최현웅 최현오 최형인 최희자
- 박준형 박준규 박지영 박찬익 박창배 박채린 박태섭 박해경 박해주 박행자 추성욱 추호정 하태훈 하희자 한경옥 한경희 한만오 한민정 한사용 한상규
- 박현빈 박현숙 박형은 박혜경 박효주 반효정 방경숙 방서인 방영미 방영식 한상기 한상욱 한세현 한승우 한영숙 한영준 한영경 한은경 한중수 한현욱
- 방유진 방준혁 방혜란 배민지 배상미 배정현 배해경 백문영 백미숙 백미영 함경화 허광래 허석훈 허성오 허 옥 허 진 허 황 현선희 현해균 홍경자
- 백상철 백성현 백순현 백심성 백은영 백은옥 백종욱 백진호 백혜룡 백향덕 홍기순 홍미선 홍성민 홍성혜 홍성화 홍순경 홍승노 홍승한 홍승훈 홍영의
- 백효정 변상연 변옥순 부종욱 시공정숙 서경산 서기원 서대현 서동진 서범석 홍옥표 홍옥희 홍운태 홍장희 홍재모 홍지만 홍지민 홍지연 홍창기 황경하
- 서영경 서은영 서자경 서재일 서전영 서정범 서진옥 서진웅 서진환 서창호 황등영 황명하 황보명 황성숙 황순정 황승용 황신아 황애란 황연숙 황인규
- 서혜명 서호경 석정순 선효숙 설수경 성경숙 성기택 성기훈 성석환 성숙환 황재숙 황지혜 황태숙 황환민 황희경 황희경 엠 마슈 미트 마 셸 슈 미 트
- 성제경 성철제 성희진 소영섭 손금임 손병두 손성세 손은정 손일락 손정수 KIMMINHAMINA PIAO ZHENJI ZACHARY M HAHN
- 손지환 손 희 송경희 송민겸 송민중 송상우 송석길 송영옥 송영주 송정섭
- 송지연 송행숙 송현범 신덕순 신동미 신동원 신명원 신선희 신소라 신윤섭
- 신은영 신재연 신정경 신정옥 신정화 신주아 신지영 신진숙 신창규 신태임
- 신혜미 신혜선 신혜숙 심대현 심정연 심희진 안경숙 안규리 안미규 안병애
- 안성자 안성준 안영복 안원도 안유미 안재덕 안정원 안현배 안호선 안홍울
- 양병국 양세영 양승원 양 영 양영모 양영이 양영현 양태중 양희동 양희수
- 엄기준 엄민우 엄소현 엄익균 엄지윤 여수진 여인열 엄정인 오경택 오규석
- 오덕자 오덕주 오명균 오민석 오서희 오성자 오순영 오정례 오정석 오혜원
- 오희숙 우수진 우제명 원재학 원종윤 위민이 위지범 유귀임 유달라 유미자
- 유병숙 유병옥 유성자 유애숙 유영주 유유희 유은아 유은희 유재현 유정광
- 유지순 유창우 유혜련 유효선 유희숙 윤강혁 윤광준 윤미선 윤미희 윤선희

단체후원

- (주)두리디자인 (주)보명엔터 (주)삼명테크 (주)제이엠에셋
- (주)하트스캔 동아화성(주)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코러스 삼척사무소
- 삼남석유(주) 선부한빛의원 세진화성(주) 에스더포플러 주식회사
- 인사이드메디컬(주) 정연내과 서울대학교 가락2동성당 빈첸시오회
- 천주교 서울대학교 갈현동성당 서울대학교 중앙동성당
- 천주교 서울대학교 창4동성당 빈첸시오회 천주교 서울대학교 창5동성당 빈첸시오회
- 서울대학교 한남동성당 한국교과기린 주식회사 한솔피아노